



불교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 연구: 삼국유사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중심으로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Using Buddhist Folk Tale – Focusing on the Samkukyusa <Nohilboodeuk and Daldalbakbak>

저자 (Authors) 이채임
Lee, Chae-Im

출처 (Source) [한국민족문화](#), (75), 2020.5, 347-375 (29 pages)
[Journal of Koreanology](#), (75), 2020.5, 347-375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63041>

APA Style 이채임 (2020). 불교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 연구: 삼국유사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5), 347-37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16 14: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불교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 연구* : 삼국유사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중심으로

이 채 임**

1. 서론
2. 불교 설화와 다문화교육과의 관계
3.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다문화교육 적용 가능성
4.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에 따른 활용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적 다문화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주의 철학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불교 사상에 주목하였다. 불교적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의 이상은 상생과 공존의 개념을 원칙으로 상호존중의 삶을 지향한다. 불교사상의 이념적 근거를 한국적 다문화주의 토대로써 다문화개념, 다문화모델, 다문화교육론의 철학적 기저로 적용한다면 다문화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도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4%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다문화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문화회 상반기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더 나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처 한국어 강사 (sujar2010@hanmail.net)

다문화교육 차원에서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반(反)편견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불교의 가르침이 담긴 불교 설화에서 다문화교육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여 다문화교육을 위한 불교 설화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불교 설화 속에는 모든 사물과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로서 평등주의 사상이 담겨져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인물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담고 있다. 이것은 불교적 특성 중의 하나인 자비사상의 발현으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태도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본고는 불교 설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작품에서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인 반(反)편견, 다양성, 상생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여 교육적 활용 방안을 밝혔다. 설화 속 두 인물의 관점의 차이를 해석하고 타자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배려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이롭다는 인식을 교육 과정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수 방법적 측면에서는 타자와의 원활한 소통(疏通)의 방법으로 화쟁(和爭)의 융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상생과 조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다문화교육, 불교 설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화쟁사상, 다문화철학

1. 서론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철학을 불교 사상에 주목하고 불교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다문화사회¹⁾로 진입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도 출입국자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체류외국

1) 인구통계학의 입장에서 '다문화사회'란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 하는 외국 태생의 인구 구성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인은 2,367,60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한다.²⁾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다문화 학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의 2.2%인 12만2200명이다. 2012년 4만6900명에서 6년 사이 2.6배로 늘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3.4%로 가장 높다. 2012년 이후 전체 학생 수는 연평균 18만여 명씩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은 매년 1만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다.³⁾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30만 4516명 중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12만 3865명(40.6%)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상당수가 인종적·문화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⁴⁾ 이는 한국사회가 문화적·인종적으로 편협한 시각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주민의 다양성을 중심에 두지 않고 주류사회가 중심이 되는 ‘통합주의적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향후 다문화사회의 전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발전 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가 공존과 상생을 도모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서구사회에 기반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해석되어 서구 이론에의 편향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상황은 서구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서구의 이론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담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은 단일 민족주의 인식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과 서구 문화에의 편향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적절치 않으며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주변화 시킬 수도 있다. 다문화란 자문화의 정체성을 근거로 하여 타문화와 만남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문화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2019. 1. 21.

3) 『중앙일보』, 2018. 11. 30.

4) 정해숙 외,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적이므로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의 기준에 의해 우열을 가리거나 시비(是非)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도 문화와 정체성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불교적 시각에서 문화 혹은 정체성은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들과 더불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고대만은 불교적 시각에서 서구 다문화주의를 비판하고 불교의 무아, 무상, 공, 연기의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밝히고 있다.⁵⁾ 불교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상의 근간으로 한국인에게 친근한 정서를 지니고 있으며 본질적인 측면에서 포용성과 유연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두 가지의 특성은 다문화의 핵심적인 원리인 다양성과 함께 타문화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불교사상의 핵심인 화쟁(和爭)사상은 모든 논쟁을 화(和)로 바꾸어 갈등을 융합하는 원리로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이론적 바탕이 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불교권 국가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아시아 불교문화를 통해 정신적인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방식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불교계의 다문화 담론을 살펴보면 불교의 근본 사상은 다문화주의를 아우르는 불교적 원리가 들어 있다는 논지이고 이러한 철학적 논리는 다문화사회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한다.⁶⁾ 이러한 근거로 불교사상을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삼국유사에 수록된 불교 설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작품에서 다문화교육의 핵심 가치와 태도 측면을 도출하여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⁷⁾ 본

5) 고대만, 「불교의 무아·연기사상에 비추어 본 다문화주의」, 『윤리연구』 79, 한국윤리학회, 2010, 186쪽.

6)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로 김영필, 「한국적 다문화교육과 불교」, 『동아시아불교문화』 1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 87쪽; 김선임, 「이주노동자공동체 형성과정에 다문화의 실태와 불교적 대안」, 『동아시아불교문화』 1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 50쪽, 조수동, 「다문화와 한국불교의 화쟁사상」, 『철학논총』 60, 새한철학회, 2010, 79~98쪽 참조.

7) 다문화 교육을 위한 설화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철학, 이념,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교육 실천의 구체적 방법, 수업의 제반 요소들, 평가 방식 등이 모두 포괄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 박인기, 「구비문학 자료의 국어과 교재 변용」, 『초등교육연구』 2, 청주교대초등교육연

작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름에 대한 인정과 포용을 통하여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요소를 가지고 있다. 낯선 타자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통해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데 적합한 문학교육 자료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식적 토대를 넓히는 사유 과정이 요구됨에 따라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행되어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 설화의 원형비평을 통해 한국 다문화사회의 문제로 지적된 인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교육 목표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불교 설화와 다문화교육의 관계⁸⁾

불교 설화는 인도 설화에서 전승된 구비문학의 한 갈래로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있어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세계 속의 문학으로 포함될 수 있다. 설화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는 주제가 많으며 전승 범위가 지리적 국경은 물론 언어적 국경까지도 초월하여 민족과 언어, 문화적 기반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유사한 설화 유형이 나타난다. 「삼국유사」 설화의 경우 다문화적 측면이 드러나는 작품이 다수 있다. 문화와 문화 간의 교류를 다룬 설화 〈가락국기〉, 주체와 타자와의 소통을 다룬 설화 〈처용랑 망해사〉, 감정적 전이의 양상을 다룬 설화 〈남백월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작품이 있다.⁹⁾ 특히 〈석탈해〉, 〈처용〉, 〈연오랑세오녀〉, 〈김수로왕와 허왕옥〉 작품은 불교문화의 유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대숙의 청소년을 위한 불교설화 비교 연구 한국 편에서는 〈묘정이와 구슬〉, 〈절을 지은 호랑이〉, 〈노힐부득이와 달달박박이〉, 〈나라님과 만파식적〉, 〈영재 스님의 노

구소, 1991, 40쪽.

- 8) 교육 현장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 그러한 점에서 문학 제재를 선택할 때에 작품의 내용을 살펴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 9) 본 연구에서는 〈남백월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작품을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는 차이를 바라본 관점의 차이에 주목하여 반면견 교육 텍스트로 활용할 것이다.

래), <아사달과 아녀>, <불국사의 탑>, <이차돈 성자님> 등 다수 다루어진 작품이 있다.¹⁰⁾ 설화는 이야기의 서사구조가 단순하여 이해하기에 쉬우며 감동, 흥미, 교육적 요소들이 학습의욕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화가 가진 문학의 원형성과 동질성에 대한 이해는 각 문화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파악하고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교육적 텍스트로 유용하다.

이러한 설화의 특성에 주목하여 설화 속에서 다문화적 측면을 찾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혜진은 다문화시대의 설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설화 속의 다문화양상을 통해 문화 능력을 길러주고자 시도하였다.¹¹⁾ 최은숙은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을 다문화 교육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다문화교육이 처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성 모색을 살폈다.¹²⁾ 불교 설화를 활용한 연구로 권은주는 『삼국유사』 불교 설화 자카타(Jātaka, 本生談)¹³⁾를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하여 다문화 인식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하였으며, 불교 설화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현장 적용 방안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대인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¹⁴⁾ 최경숙은 설화에 대한 국어교육의 접근으로는 교과서 제재에 관한 논의,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다시 쓰기 활동에 대한 연구, 창의력이나 사고력에 관한 연구 등 진행되었다.¹⁵⁾

10) 김대숙, 「청소년을 위한 불교설화 비교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21,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2014, 5~27쪽.

11) 최혜진, 「다문화시대의 설화 교육 시론」, 『문학교육학』 2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267쪽

12) 최은숙, 「삼국설화에 나타난 ‘공감’ 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어문학』 128, 한국어문학회, 2015, 189~213쪽 참조.

13) 자카타(Jātaka, 本生談)는 부처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학성을 담은 불교 경전으로 부처의 전생담을 응용하거나 창작한 내용들로 우화(寓話)나 다양한 비유로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이야기이다. 자카타는 기원전 3~4세기 무렵 540여 가지의 동화로 정리되어 서기 6세기 무렵 동서양 곳곳의 언어로 번역된 이후 고전의 부리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삶의 지혜가 오랜 시간 재해석되면서 전승된 인류 최초의 동화로서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안도현, 『불교동화 1』, 파랑새어린이, 물구나무, 2008, 참조.

14) 권은주·박사빈, 「자카타(Jataka)의 교육적 적용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불교학』 59, 한국불교학회, 2011, 286쪽 참조.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구전설화가 활용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연구가 교육적 효용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교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고 상호 공존하는 연기(緣起)론적 사유의 바탕에서 문화 간 공존과 조화의 문제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입장이다. 문화 혹은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더불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문화의 속성은 갈등과 통합, 변형과 재창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의존적일 때 상생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인식이 이루어질 때 다양성의 긍정으로 연결 가능하다¹⁶⁾.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바탕이 될 때,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바람직한 시선으로 교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

『삼국유사』는 시기적으로 불교가 융성할 때 편찬된 자료로 불교적 가르침이나 교훈을 전수하기 위한 역사 서적이자 불교설화 수집서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불교 설화는 문학이 가지는 교훈성과 함께 불교 경전의 내용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장르이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불교적 가르침이나 교훈을 전수하기 위한 이야기로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여 그 가운데 교훈을 전달하게 된다. 불교 설화의 가르침은 전래동화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도덕성,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업을 베푸는 내용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전래 동화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선덕악화(善德惡化) 주제는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예로 자비, 인간존중, 동물애 등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생명에 가치를 부각시키는 불교적 윤리사상을 담고 있다.¹⁷⁾ 중등학교 윤리과에서 다루는 주요 가치인 생명존중, 인간존중, 관용, 평등, 정의 등과 연관지어 볼 때 불교 설화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
- 15) 최경숙, 「설화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 방안 소고」, 『선청어문』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416쪽.
 - 16) 임재해, 「설화 속의 다문화 현상 읽기」, 한국문화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2, 13, 37쪽.
 - 17) 불전설화 자타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 향상을 검증한 바 있다. 권은주, 「불교 동화의 유아교육적 적용과 유아들의 반응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8(4), 생태유아교육학회, 2009, 115쪽.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인물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연결 가능한 주제이다. 이것은 불교적 특성 중의 하나인 자비사상의 발현으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불교적 교훈을 담은 설화는 인간의 자유, 평등, 정의, 인권 등을 삶과 연결시켜 인간의 보편가치를 추구함에 따라 다문화교육에서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anks(2004) 역시 고정관념을 없애고 다문화적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문학을 활용한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¹⁸⁾ 이러한 불교 설화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삶의 현실을 포착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을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 다루면서 생명존중 의식과 생명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주변의 무생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로 확대시켜 봄으로써 다문화 구성원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불교 설화의 교육과정은 불교 사상 자체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에 내제된 정신과 문화를 접함으로써 인권, 평화, 화합,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불교 설화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과정은 불교적 윤리사상을 토대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타인과 자신이 다르지 않은 존재(自他不二)라는 점을 인식시켜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관 형성에 기여한다.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는 신분, 성별, 빈부, 인종 등의 차별이 없으며 다양성과 고유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가 가능하다.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와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융합적 삶에서는 갈등, 대립, 폭력은 극복되며 다문화와 다인종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불교 설화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의식들은 불교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오늘날 환경문제, 생명경시풍조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접근이다.¹⁹⁾ 템플스테이(temple stay)와 같은 불교문화와의 연계는 외국인

18) Banks, J. A. & Banks, C. M. A. *Handbook of rea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San Fransco: Jossey-Bass, 2004.

19) 불교 의식 방생(放生)은 생명 존중과 평등을 인식하게 해 주며, 발우 공양(供養)은 음식운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체험위주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다.

불교 설화가 지닌 특성과 다문화교육의 방향성과 관련지어 해석해 본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편견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한 인종, 소득, 출신국가에 따른 편견으로 강한 배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이것은 다문화교육 차원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근본 바탕에서는 한국인과 이주민이라는 구별은 일시적인 것이며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은 상호의존적 관계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문화교육에서 불교 설화의 가치를 모색하는 시도는 현재 다문화교육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으로 적합성을 확보한다.

3.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다문화교육 적용 가능성

다문화 사회에서 학교교육에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편견과 차별을 감소하여 이주민에 대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 출신국의 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선진국 출신 외국에 대해서는 선망의 태도를 보이고,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²¹⁾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인종, 민족,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무시와 멸시,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리를 체험하게 한다. 이러한 접근은 세계적 시각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0) 이종일,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인종 편견 특성」, 『사회과 교육연구』 19(4),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2, 101쪽.
 21) 유승무·이태정, 「한국인의 사회적 인식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201』 9(2),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275~311쪽.

자존감 상실과 우울, 폭력으로 연결되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주지하다시피,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은 이상적인 다문화사회의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더구나 지속적인 편견은 차별과 갈등, 대립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편견 교육을 통해 타문화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의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편견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깨닫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편견감소 교육을 위해서는 편견이 발생하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편견을 가지지 말자'라는 교훈적인 구호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의식은 심리적으로 호불호의 문제나 또는 무지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로서, 인간의 신념체제의 특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편견의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간의 신념체제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다.²²⁾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다문화교육은 소수문화 집단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중등학교 수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하다. 불교 용어는 대상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학습자로 구성된 교실환경에서 이질적 구성원에 대한 접촉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방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갈등의 원인을 타자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텍

22) 황규호, 『다문화교육에서의 자유교육의 성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994, 201~202쪽 참고.

스트로 삼국유사(三國遺事) 〈남백월이성(南白月二聖) 노힐부득(努矜夫得) 달달박박(怛怛朴朴)〉 불교 설화에 주목하였다. 본 작품은 인간이 가진 편견의 실상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노힐부득이 낯선 타자와의 관계를 상생의 조화로 도출한 결과는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서 이상적인 사회통합의 과정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 불교 사상의 접근은 다소 관념적이어서 난해할 수 있지만 본 설화 속 텍스트는 사람들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속성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체할 수 있는 불교 사상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어 다문화교육 제재로 적합한 문학 자료이다. 내용 분석에 앞서 『삼국유사』 권4 탑상(塔像)편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백월산 동남쪽 마을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골격이 범상치 않았고 세상 밖을 동경하는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서로 좋은 친구였다.
- 2) 이십 세가 되어 머리 깎고 중이 되었으나 여전히 처자와 함께 살면서 산업을 경영하다 부처가 되고자 해서 속세를 떠나 깊은 골짜기에 숨는다. 북쪽 고개와 동쪽 고개를 차지해서 각각의 암자를 짓고 달달박박은 미타불(彌陀佛)을 노힐부득은 미륵불(彌勒佛)을 염송했다.
- 3) 삼 년이 못 된 어느 날, 해 저물녘에 나이 이십에 얼굴이 매우 아름다운 한 남자가 갑자기 북쪽 암자에 찾아와 시를 지어서 자고 갈 것을 청한다. 달달박박은 거절한다.
- 4) 남쪽 암자에 찾아온 남자가 앞서와 마찬가지로 청하고 계(僞)를 주니 노힐부득은 몹시 놀라지만 머물게 한다.
- 5) 밤이 되자 남자는 노힐부득에게 자신이 산고(産苦)가 있으며 자리를 깔아줄 것을 요청한다. 곧 해산을 하고서는 또 목욕하기를 청한다. 노힐부득이 목욕을 시켜주자 통 속에 물이 향내를 내면서 금색 액체로 변한다. 남자는 노힐부득에게 목욕하기를 권하고 부득은 마지못해 목욕을 하게 된다. 그러자 갑자기 정신은 상쾌해지고 살결은 금빛으로 되고 연대(連帶)가 생겨난다. 남자는 부득에게 그 곳에 앉을 것을 청한다.
- 6) 여인은 자신은 관음보살로 대사를 도와 대보리를 이루려 한 것이란 말을 남긴 채 사라진다.

- 7) 한편 달달박박은 노힐부득이 계(戒)를 더럽혔을 것이라 예상하고 찾아 왔다가 부득이 광명을 발하고 금빛으로 단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 8) 달달박박은 노힐부득으로부터 부처가 된 내력을 듣고 크게 탄식한다. 그러자 노힐부득이 통 속에 남은 물에 목욕하기를 권해 목욕을 하고 달달 박박도 부처가 된다.²³⁾

이 이야기는 두 인물이 성불(成佛)을 위하여 구도(求道)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성불을 이루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두 인물은 친구이긴 하지만 대결이라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불하는 과정에서 성패가 드러나고, 드러난 결과가 일반적인 예상을 빗나가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강점이 있다. 특히 여인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인해 득도의 성패가 나타난 경위와 이유를 해명하는 것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두 인물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로 해석해 볼 때 다문화교육의 주제의식에 부합되는 작품으로 해석 가능하다. 두 인물을 정주민으로, 여인을 낯선 이주민이라고 설정한다면 달달박박은 이주민과의 관계를 거부한 단절의 인물로, 노힐부득은 이주민과의 소통(疏通)의 관계에서 공존과 상생의 긍정성을 드러내는 도식적 관점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설화 속의 낯선 이주민은 수혜자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식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차원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전제하고 실질적인 반편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텍스트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 속에서 드러나는 다문화교육의 핵심 가치는 다음에 제시한 〈표 1〉과 같다. 작품 속 두 인물이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성불(成佛)의 과정은 불교의 공사상, 연기법, 자리아타, 화쟁의 원리를

23) 두 인물이 여인의 칭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였는가에 따라 선득도(先得道)하거나 후득도(後得道)하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대응 방식의 차이는 다문화사회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은하, 「〈남백월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통해 본 〈신립오성 이야기〉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의식」, 『국어교육』 100, 한국어교육학회, 1999, 472~473쪽.

바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학적 근거는 다문화 교육의 반(反)편견, 다양성, 상생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한다. 불교적 시각에서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존재는 비실체적으로 유동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은 다문화사회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복수의 정체성을 취할 수 있음을 가능하게 하며 작품 속 두 수도승의 존재도 고정되지 않은 실체로서 여인을 통해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空)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비어 있음'이다. 비어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 점은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편견의 오류를 발견하고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가능하다. 불교의 연기론은 상호의존성을 부각시킨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사물과 밀접한 연관 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영향을 주는 불이(不二)적인 존재이다. 텍스트의 노힐부득과 여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상호의존적 관계로 연결된 인연의 산물이다. 다문화사회의 상호의존성과 연기는 타문화와 접촉하고 소통하고 융합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불교 설화 속에 드러난 다문화교육 핵심 가치

다문화교육 핵심 가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작품의 모티브	불교 사상 해석학적 근거
반편견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 성불(成佛)의 과정	공(空)
다양성		연기(緣起) 자리이타(自利利他)
상생		화쟁(和諍)

앞서 불교 설화가 가진 제재의 특성은 다문화교육의 핵심적인 가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텍스트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에서 상생의 원리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본 장은 설화의 텍스트에서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반성하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 두 인물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는 대비되는 관점에서 해석되어 예상에 빗나간 결말의 상황이 드러난다. 박박은 수도자로서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계율을 지켰다. 수행자에게 여인은 욕망과 유혹의 대상으로 경계해야 할 관계로 성불의 과정에 걸림돌로 판단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인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에 집착하여 성불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반면에 노힐부득은 여인을 욕망의 대상이 아닌 어려움에 처한 중생의 한 사람으로 수용한 보살행으로 성불에 이르게 되었다. 부득은 수행의 관점을 계율에 두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여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한 자비의 관점이다. 이점은 불교의 진정한 정신은 계율에 집착이 아니라 대중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득이 박박에게까지 도움을 주어 함께 성불한다는 면에서 불교의 자비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모티브는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질적 외모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할 수 있는 텍스트로 활용 가능하며 나아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문화 상대주의적 인식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확장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적 가치와 태도가 함양되기 위한 전제는 자신의 관점이 극히 제한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의 가능성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²⁴⁾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관점이 보편적이지 않는 편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자각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확장된 시각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불교의 공(空) 사상은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뿌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존재 가능함을 자각하도록 한

24) 초기 경전인 《우다야》에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설화가 있다. 불법에 대한 각기 이설(異說)에 대한 비유를 설한 이야기로 장님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뒤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해 말하도록 하여 자신이 아는 범주에서 고집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설화이다.

다. 따라서 육안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편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마음의 눈으로 타자를 볼 수 있는 깊은 이해와 배려의 태도를 강조한다. 공의 관점은 학습자에게 자신의 편견을 반성할 수 있는 원리를 깨달음으로써 타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타자의 정체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다양성의 존중을 강조할 수 있다. 작품 속 노힐부득은 주체의 관점에서 여인을 어려움에 처한 중생의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였다. 여인이 처한 상황을 수행자 관점에서 거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해탈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이주민에 대하여 동화주의적 시각으로 주체의 관점에서 동화시키려고 한다. 이주민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인간적 측면의 감정일 뿐 이주민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인종이 서로를 인종하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타인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는 사고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우택의 사회배경에 따른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영향으로 자신은 중국인이라는 '대륙적 자부심'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이 모국이라는 '동포의식'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새터민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남한사람도 아니고 북한사람도 아닌 조선사람'이라는 식으로 중간적인 이중정체성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이런 양상에서 글로벌시대의 이주민들은 글로벌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과 함께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열린 태도가 가능해진다.

셋째, 노힐부득의 득도의 과정은 상생의 원리로서 인정과 포용에 대한 주제로 활용 가능하다. 여인을 위한 보살행이 결국 자신에게 성불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타인을 위한 배려가 결국 자신에게

25)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통일연구학회, 1997, 109쪽.

도 이로움을 준다는 자리아타(自利利他)는 상생과 조화를 추구하는 다문화 사회의 통합의 원리를 뒷받침한다. 타인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으로 모든 것은 각각의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연결된 존재라는 연기적²⁶⁾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 여인의 도움으로 미륵불이 된 후 박박에게도 성불의 과정을 인도하는 모습은 대승보살의 정신이며, 화쟁의 방법으로써 무애(無碍)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부처는 높고 낮음이 없는 동등한 지위로서 함께 부처로 화현하였다. 이점은 두 인물이 성불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사고가 드러난다.²⁷⁾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 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소통하는 측면으로 관련지어 살펴본다면 박박은 자신의 수도를 위해 여인의 상황을 외면한 점으로 결국 우리 사회가 이주민과 소통하지 않은 상층관계로 확장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부득은 편견을 벗어나 여인과 소통을 함으로써 성불을 이루는 상생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노힐부득과 여인의 관계는 이상적인 다문화사회 통합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생의 관계로서 공동체적 가치 교유가 가능하다. 두 인물과 여인의 관계를 정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로 확장하여 설정해 본다면 충돌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거시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인류 공통의 목표와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 있으며 운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대감을 형성하며 글로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주제로 연결 가능할 것이다.²⁸⁾

26) 「중아함경」 「此有故從 此生有故從生 此有故從無 此滅故從滅」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기에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27)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설화에서는 먼저 성불한 노힐부득이 함께 수행하던 달달박박도 성불하도록 이끌고 있다. 하지만 성불의 모습과 성불한 순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부처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서연, 「신라 現身成佛 설화에 보이는 의상 화엄사상의 영향」, 『한국불교학』 78, 한국불교학회, 2016, 555쪽.

28)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한 사회 안의 민족 집단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최근에는 핵문제, 생태계의 위기, 테러리즘, 인권 문제, 천연 자원의 고갈과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현안들이 등장하면서 국가 간의 연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써 다문화교육의 범위는

4.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에 따른 활용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을 위한 설화의 유용성과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불교 설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작품 속에서 다문화 교육적 접근 가능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앞 장에서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다문화 교육 내용 요소²⁹⁾인 ‘반편견’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에 따른 측면에서 화쟁(和爭)의 원리를 활용한 토론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옥희에서는 화쟁 사상은 7세기 무렵 신라의 원효가 설한 철학적 신앙으로 불교 신앙의 다양한 이론들을 하나의 근원적 진리, 즉 일심(一心)의 진리로 귀일(歸一)시켜 각 이론들의 의의를 그대로 살려 인정해 주는 불교사상이라고 하였다.³⁰⁾ 화쟁은 불교 신앙 안에서 다양한 경향의 경전이나 여러 종파의 가르침들 사이의 다툼과 갈등을 화회(和會)·융합시키는 원효 특유의 해석학적 방법을 말한다. 화쟁 사상은 일심(一心)에 근거하여 ‘공생’ 혹은 상생과 통합(조화)’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다문화사회의 현실에서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통합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³¹⁾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에 나타난 두 인물과 여인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소통과 단절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벗어난 화쟁 원리에 근거하여 토론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화쟁의 원리³²⁾를 적용한 토론 과정에서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는 논제에 대해 긍정

전 지구적인 관점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Christine I. Bennett, 김옥순 외 역,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23쪽.

29) 다문화 교육 내용 요소는 ‘문화’, ‘협력’, ‘반편견’, ‘정체성’, ‘평등성’, ‘다양성’ 6가지이다. 원진숙 외 6명,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사회평론, 2010, 281쪽.

30) 신옥희, 『일심과 실존: 원효와 야스퍼스의 철학적 대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9쪽.

31) 화쟁사상은 7세기 후반 신라사회에서 대립하고 있던 이견들을 조절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라 불교학에서 전개되는 혹은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이론적 다툼의 조화가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종합화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으로 파악한다. 박태원, 『원효의 화쟁철학』, 세창출판사, 2017, 35쪽 참조.

32) 화쟁의 보편 원리는 각 주장의 부분적 타당성(一理)을 변별하여 수용하기, 일심(一心)의 지평, 언어에 대한 통찰이 세 축이 어울려 서로 수용하는 통섭(通攝)관계로 만들어 가는

과 부정의 양측의 논리에 유연성 원칙이 있다는 점이다. 양측 모두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위치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긍정과 부정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분하지 않음을 전제한다. 두 인물이 선택한 자신의 입장은 나름 타당한 일면이 존재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³³⁾ 각 인물의 입장을 인정하되 그것만이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그르다고 버리지 않는다. 화쟁의 원리는 긍정과 부정, 중생과 부처, 생사와 열반 등의 두 개의 편견과 극단을 지양하고 있다. 어떤 개념의 의미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쓰이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모든 갈등의 상황에서 소통의 길로 갈 수 있음을 해석한다. 화쟁은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이끄는 사상적 원천으로서 다문화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사회현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 도출 및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문화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해결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향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작품 속에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화쟁의 원리를 기반으로 다문화교육 모형³⁴⁾에 적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반성→인정→수용→실천 4단계로 제시한다. 설화 속 두 인물이 내세운 성불의 조건, 수도행과 보살행을 상대적 개념으로 전개하지 않는 토론 과정을 불교의 '화쟁(和諍) 사상'³⁵⁾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과정을 제시한다.

것이다. 이채임, 「불교 '화쟁사상' 기반 다문화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1쪽 <그림1> 참조.

33) 본 설화는 여인을 대한 태도에서 두 인물은 나름 근거를 대었지만, 중생의 소원에 따라 응해주는 노힐의 보살행을 더욱 높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필자는 화쟁의 원리를 적용한 측면에서 해석하여 양측의 입장을 역지사지 관점에서 우열과 시비를 지양하고자 한다.

34) 본 연구의 다문화교육 수업절차는 '화쟁사상' 기반 다문화교육 모형을 참고하여 적용함을 밝힌다. 이채임, 앞의 논문, 39쪽 <그림2> 참조.

35) 원효에 의하면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견해에 사로잡혀서 주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논쟁을 조화시키려 하는 것이 화쟁의 방법이다. 이채임, 앞 논문, 20쪽.

1. 수업 개요

- ▶ 교육대상 : 청소년 학습자 (중학교 3년 이상)
- ▶ 교육시간 : 1차시~3차시, 50분
- ▶ 교과영역 : 국어과, 화법 또는 문학
- ▶ 학습주제 : 편견의 오류를 깨닫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기
- ▶ 다문화교육 : 반편견, 다양성, 상생
- ▶ 교수·학습 자료: 설화지문, PPT 자료

1) 반성 단계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 속에 자리하는 인종적,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발견하고 반성하는 단계이다. 작품 속에서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실제적 자각이 이루어지도록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관점의 차이를 확인한다. 나아가 외국인 국적에 따른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반성하는 활동으로 확장하여 진행한다. 이러한 반성의 과정을 통해 편견의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봄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차별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표 2> 교수-학습 지도안 : 편견에 대한 반성

주요 내용		편견에 대해 반성하기
학습 목표		1.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경험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자신의 편견을 반성하고 편견의 근거를 찾아 말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15')	동기유발	▶ 편견 현상 파악하기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이유로 오는지 질문을 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수업을 안내한다. -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종적 차별 요소들을 살펴보고 편견의 실체에 대해 생각하기

전개 (25')	반성 하기	활동 1	▶ 불교 설화에서 관점의 차이 확인하기 -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여인에 대한 태도 말하기 - 낯선 이주민에 대한 자신의 관점 반성하기
		활동 2	▶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 돌아보기 - 영어권 국가와 동남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대해 생각해 보기 - 편견의 근거 발표하기
정리 (10')	내용정리	▶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반성하고, 편견의 근거를 찾아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르게 인식한다.	
	다음차시	▶ 교사는 지금의 시각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물음을 제시하며 다음 차시 수업과의 연관성을 예고한다.	

2) 인정 단계

설화 속 여인의 상황을 통해 인간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위치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어려움에 처한 여인의 정체성을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육안으로 보이는 실체에 대한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정체성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수행 과정을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벗어나 다름과 차이로 해석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두 인물의 수행법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견으로 연관지어 다양성의 인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 존재하는 장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 교수-학습 지도안 : 다양성의 가치 인정

주요 내용	다양성의 가치 인정하기
학습 목표	1. 다양한 정체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말할 수 있다. 2. 설화 속 여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정체성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5')	학습 활동	▶ 자신과 타인의 관점 차이 인정하기 - 경험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학습 목표	▶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수업을 안내한다. -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면을 발표할 수 있다.	
전개 (40')	다양성의 인정	활동 1 (20')	▶ 우리 사회에 소수자로 인식되는 존재를 살펴봄으로 그들에 정체성에 대해 이해한다.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등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들만이 가진 역할은 무엇인가(영상을 통해 동일함보다 다양성이 긍정적인 가치를 제시)
		활동 2 (20')	▶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 여인에 대한 태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 수도행과 보살행을 실천한 두 인물의 관점을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 발표하기
정리 (5')	학습내용 정리	▶ 학습한 내용의 주요 개념 및 주제에 대해 정리한다. - 다양한 관점에서 가치관이 형성됨을 알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한다. -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인정한다.	

3) 수용 단계

본 단계는 각기 다른 관점과 주장으로 인해 갈등과 대립을 조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타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만이 가진 제한적인 조건을 고려한다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수용 방식이다. 작품 속의 두 인물이 여인을 대한 태도에서 나름 근거를 대었지만 중생의 소원에 따라 응해 주는 보살행을 더욱 높이 받들어졌다. 그러나 본고의 토론활동에서는 자비심과 계율의 집착을 옳고 그름이나 긍정과 부정으로 이분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배려하는 자세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현재 다문화 상황에 마주할 수 있는 이주민의 상황을 예시로 이들의 입장을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고려하고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한 타당한 근거를 찾아본다. 문학을 활용한 다문화교

육에 따르면, 학생들은 주인공의 입장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면 다문화 주인공을 좀 더 잘 공감한다.³⁶⁾ 주인공의 관점에서 토론해 보는 방법은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4〉 교수-학습 지도안: 상생의 조건 수용

주요 내용		상생의 조건 수용하기	
학습 목표		1. 설화 속 인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말할 수 있다. 2. 배려를 받는 사람과 베푸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5')	학습 목표 제시 및 수업안내	▶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수업을 안내한다. - 제시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는 모듈별 자리를 배치한다.	
전개 (40')	상호 의존적 관계로 상생	학습 활동 (15')	▶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텍스트를 토론을 위한 전단계로 발문을 구성한다. - 부득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타당한 근거 수용) - 수도자에게 계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계율을 지킨 박박은 부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부득은 계율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부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부득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성불하였다. 타인을 위한 일이 나에게도 이로운 일인가 - 부득은 마르불이 된 후 박박도 성불하도록 인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토론 활동 (25')	▶ 부득과 박박의 수행법을 통해 타인을 위한 배려가 자신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가치가 있음을 알도록 한다. - 계율과 보살행을 실천한 두 인물의 태도에서 타당한 근거에 대해 토의하기 -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학생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찾기 - 이주민과의 상생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발표하기
정리 (5')	학습내용 정리	▶ 토론을 통해 상생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모두에게 이롭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안내하고 정리한다.	

36) 장인실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2012, 348쪽.

4) 실천 단계

실천의 단계에서는 전 단계의 부분적 타당성을 수용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주변에서 만나는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후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인간이란 타인과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할 때 상생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

5. 결론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는 점점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율이 OECD 국가의 평균인 6%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최근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반성이 교육적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에 본고는 다문화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불교 사상에 주목하고 불교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불교 사상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서로 어울려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융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다문화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다. 불교의 본질적 요소와 불교 설화 속의 다문화적 요소를 모색해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주제와 교수법을 살폈다. 불교 설화가 지닌 교훈성은 다양한 집단이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적 조건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있다. 이러한 측면은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은 평등한 존재이자 상호 의존적 관계로 내용이 구성되어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 내용 요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다문화교육의 주제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삼국유사에 실린 불교 설화<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분석하여 다

문화교육의 주제를 세 가지로 추출해 보았다. 첫째, 다양한 정체성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과 타인의 정체성 존중이 가능하고 둘째,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다름에 대한 인정과 포용에 대한 주제로 효용성이 있다. 셋째, 이상적인 다문화사회 통합의 주제와 관련하여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적 가치 지향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은 학생의 특성이나 대상의 수준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고는 고전문학 장르의 특성상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제재를 활용하여 반편견 교육을 통한 상생의 가치를 도출하는 단계별 과정을 제시하였다. 상생의 원리로써 화쟁의 보편원리를 적용하여 토론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화쟁은 다문화사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방법론으로 교육적 접근이 가능한 철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화쟁의 원리는 미시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거시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에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불교의 정신은 조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 이념과 상이하지 않다. 이런 점을 염두하고 불교를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고, 본 연구를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은 후속 연구 과제로 유보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최남선 편,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5.

2. 논저

고대만, 「불교의 무아·연기 사상에 비추어 본 다문화주의」, 『윤리연구』 79, 한국윤리학회, 2010.

김영필, 「한국적 다문화교육과 불교」, 『동아시아불교문화』 1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

김선임, 「이주노동자공동체 형성과정에 다문화의 실태와 불교적 대안」, 『동아시아불교문화』 1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

권은주, 「불교동화의 유아교육적 적용과 유아들의 반응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8(4), 생태유아교육학회, 2009.

권은주·박사빈, 「자카타(Jataka)의 교육적 적용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불교학』 59, 한국불교학회, 2011.

김대숙, 「청소년을 위한 불교설화 비교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21,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2014.

김상돈,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선미,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 50(4),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1.

류덕제, 「한국 불교 아동문학의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2010.

모경환, 「다문화주의 교육내용과 방향: 다문화~세계화 교육환경에 따른 학교 교육 과정의 대응」,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학회·한국초등교육학회, 2008.

박서연, 「신라 現身成佛 설화에 보이는 의상 화엄사상의 영향」, 『한국불교학』 78, 한국불교학회, 2016.

박태원, 「원효 화쟁사상의 보편 원리」, 『철학논총』 38, 새한철학회, 2004.

- _____, 「원효의 화쟁논법과 쟁론 치유」, 『불교학연구』 35, 불교학 연구회, 2013.
- _____, 「원효의 화쟁철학」, 세창출판사, 2017.
- 신옥희, 「일심과 실존: 원효와 야스퍼스의 철학적 대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안경식 외,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2008.
- 안도현, 『안도현 시인이 들려주는 불교동화 1, 2, 3』, 파랑새, 2009.
- 양영자,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8.
- _____, 「한국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7.
- 오은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2012.
- 원진숙·김정원·이인재·호엽·박상철·김광수·류재만,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사회평론, 2010.
- 유승무·이태정, 「한국인의 사회적 인성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201』,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 이용승,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검토와 정당화」, 『민족연구』 41, 한국민족연구원, 2010.
- 이재우, 「인간탐구로서의 고전문학교육 연구-이인성불담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 이종일,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인종 편견 특성」, 『사회과교육연구』 19(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0.
- 이채임, 「불교 화쟁 사상 기반 다문화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임재해, 「설화 속의 다문화 현상 읽기」, 한국문화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 장인실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2012.
- 장승희,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 분석: 어린이 불교교육의 가능성 탐색」, 『윤리연구』 109, 한국윤리학회, 2016.

-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통일연구학회, 1997.
- 정운채,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과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2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 정해숙 외,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조수동, 「다문화와 한국불교의 화쟁사상」, 『철학논총』 60, 새한철학회, 2010.
- 천명재, 「원효 화쟁사상을 통한 도덕교육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논문, 2012.
- 최경숙, 「설화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 방안 소고」, 『선정어문』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 최은숙,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 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어문학』 128, 한국어문학회, 2015.
- 최혜진, 「다문화시대의 설화 교육 시론」, 『문학교육학』 2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 하은하, 「〈남백월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통해 본 〈신립오성 이야기〉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의식」, 『국어교육』 100, 한국어교육학회, 1999.
- 황규호, 『다문화교육에서의 자유교육의 성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994.
- Banks, J. A. & Banks, C. M. A, *Handbook of rea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San Fransco: Jossey-Bass, 2004.
- Christine I. Bennett, 김옥순 외 역,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3. 기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4월호.

(<http://www.immigration.go.kr/>, 검색일: 2019. 7. 10.)

<https://www.joins.com/v2/?mseq=11&tid=23169007&cloc=joongang|article|paper>(검색일: 2018. 11. 30.)

〈Abstract〉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Using Buddhist Folk Tale**
- Focusing on the Samkukyusa 〈Nohilboodeuk and Daldalbakkak〉

Lee, Chae-Im

This study focused philosophy of multiculturalism suitable for Korean multicultural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based on a discussion of multicultural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Ideals of multicultural society from the Buddhist aspect pursue the lives of mutual respect based upon the concept of harmony and coexistence. These ideological grounds of Buddhist philosophic idea can be used based on Korean multiculturalism and could be alternatives to integrate multicultural society and resolve conflicts by applying philosophical bases as a multicultural concept, multicultural model, and educational theory of multiculturalism.

Korean's perception of multiculturalism is becoming more negative whe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the country has reached 4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For this reason, the necessity of education for Koreans to abolish prejudice against immigrants is being highlighted on multicultural education level as the change in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immigrants is required.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a relationship between Buddhist folk tale that contains Buddhist teachings and the core value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xplored the applicability of Buddhist fairy tale for multicultural education. All objects and men in Buddhist folk tale express consideration and love for the alienated people in our society with equalitarian principles as collective beings. This being the expression of merc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m, contains an educational

value that can improve understanding and tolerance for immigrant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educational value by investigating the applicabil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xtracting essential education elements like diversity, identity, and cooperation in a Buddhist story <Nohilboodeuk and Daldalbakbak>.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d teaching methods using the theory of harmonization of Buddhism. The theory of harmonization is the core idea and value that lies based on Korean Buddhism, and it presents a principle for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reconciliation of different arguments and communication. Also, this study suggested the key-stage four teaching-learning guidance with anti-bias as the topic based on the models of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theory of harmonization. This study proposed a learning activity process of opening your mind with one heart, recognizing the value of diversity, accepting partial relevance, and forming cooperative relations using texts from a Buddhist folk tale <Nohilboodeuk and Daldalbakbak>.

*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Buddhist Folk Tale, <Nohilbudeuk Daldalbakbak>, the Theory of Harmonization, Multicultural Philosophy

· 논문투고일: 2020년 3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9일 · 게재결정일: 2020년 5월 18일